

삶과 역사의 상처 보듬어 안기

《은행나무 이야기》 펴낸 김진경씨

“80년 광주의 기억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영혼의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앞에 던져진 역사적 상처를 거칠게 따져보는 사실규명의 차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개인과 역사에 드리워진 상처를 삶의 보편적인 문제로 끌어올려 보듬어 안아야 할 때입니다.”

80년대 사회변혁의 전위에서 가파른 역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살았던 김진경 시인(45)이 ‘우화’라는 ‘우회의 무기’를 들고 90년대의 문학전선에 다시 섰다. 그가 펴낸 《은행나무 이야기》(문학동네)는 대결과 전투의 극한대립으로 얼룩졌던 험벗은 산정에서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일상의 평야로 내려온 이야기다.

나무등치에 무수한 총알을 박은 채식민지·해방·좌우대립의 시대를 지나 황금빛으로 물들던 아빠 엄마 은행나무와 80년 광주의 쓰라린 상처를 딛고 장엄하게 물들어가는 아기 은행나무의 삶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의 자기성숙과 따뜻한 관계맺음의 소중함을 섬세한 시인의 시선으로 포착해간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들 자신에 대한 우화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처를 개인의 상처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한 우화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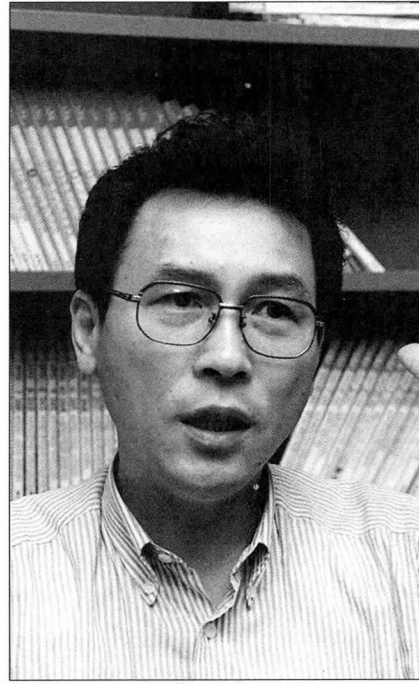
국어교사로서 재직하던 중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5월시 동인을 결성했다. 85년에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투옥되어 해직과 함께 1년 2개월 동안 영어의 몸이 되었다. 87년 복권된 후 89년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으며 민주교육 실천협의회, 전교조 등에서 교육운동을

펴왔다. 현재는 전교조 산하 참교육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송의여전에서 문학사를 강의하고 있다. 교육운동에 몸담아온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의 세계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서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큰 틀에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볼 때라고 강조한다.

“교육의 각 주체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체적인 시야를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국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글쓰기에 더욱 몰두할 생각이다. 현재 장편소설 《내 마음의 이리》(가제)를 마무리하고 있다. 80년대적인 삶을 진지하게 되짚어보면서 90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앞으로 풍자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이르렀으면서도 과거의 습성에 고착된 채 돈키호테처럼 자기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뚱대는 우리의 우스꽝스런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해볼 생각입니다.” — 박천홍 기자



등정의 정신 일깨우는 산악인

《역동의 히말라야》 펴낸 남선우씨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비박을 했습니다. 모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살아온 날보다 더욱 기나긴 밤을 보냈지요.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낀 셈이지요. 그런 경험은 아무리 나누어 가지려고 해도 자신만의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현장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남나드는 혹독한 경험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산행을 꿈꾼다. 하지만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의 끈을 풀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고통으로 다가선다. 전문 산악인들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등정을 꿈꾸는 산악인들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등산은 관객과 심판 그리고 부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열을 오직 한길 발 아래 묻어둘 뿐이지요. 그래서 등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사람살이와 비유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정열을 산에 묻으며 살아온 그는 새로운 등정방식으로 산행을 도모한다. 또한 진정한 산악인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알프스·알래스카·안데스 등을 중심으로 한국 원정사 2집을 펴낼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

에베레스트(8848m)를 등정한 사내에게 온갖 찬사가 쏟아졌다. 역경을 이겨낸 탐험가로, 진정한 개척정신을 보여준 한국인으로. 하지만 산에 오르는 과정을 무시한 격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선우(44)씨는 산악인들의 원정사를 집대성한 《역동의 히말라야》(사람과 산)를 통해 진정한 산악인의 정신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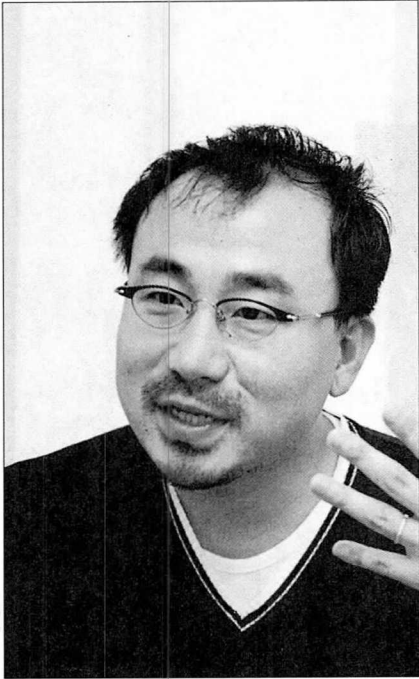
“산을 올랐다는 것보다 그 과정을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등정주의와 결과주의에 입각한 객관적 잣대가 산악인의 정신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산악인들의 노력을 단순히 이름 앞에 붙는 몇 자의 수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단호히 부정한다. 진정한 산악인은 어느 산을 올랐다는 결과보다 등정을 위한 준비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올랐어도 오히려 내려오는 길에 등정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며 등산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한다.

“등산을 마치 다른 스포츠처럼 객관화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산악인 중에 일부는 아직도 그러한 평가에 만족하여 등정주의를 고수하기도 합니다. 스타의식은 산악인이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산악인과 등정에 대한 평가가 결과 제일주의로 이루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또한 산악 등정이 다른 스포츠처럼 국가적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겨두기를 바란다. 그가 개인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푸리도(7145m) 봉을 등정하고 내려오면서 겪었던 지독한 기억이 한몫 하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펴낸 김지롱씨

대 큰 역할을 했다. 꿈이 없는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삶이 의미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담은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겔리온'의 작가는 신문도 읽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가 그려낸 세계는 완벽하게 현대성과 조응한다. 이 사실을 편집자나 마케팅 전문가가 정확하게 집어낸 것이다.

“대중문화는 작품인 동시에 상품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뛰어난 감각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지롱씨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본 본격적인 책을 후속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외적 품위를 포기하니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지더라는 그는 자동차, 집, 통장, 이런 데는 전혀 무관심하다.

“돈을 좀 벌게 되면 남미의 거리 연주자들, 인도의 애니메이션 등을 가져다 보여주는 '문화번식교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화번식과 오해는 일본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현주 기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문화계가 들썩거린다. 우리 문화를 싸늘이하리라는 불안감과 새로운 자극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모두 막연한 생각뿐이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명진출판)에서 김지롱씨(34, 경제문화평론가)는 일본문화를 적극적으로 공부하지는 주장을 펴다.

“한국 상품을 일본에 팔기 위해, 나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일본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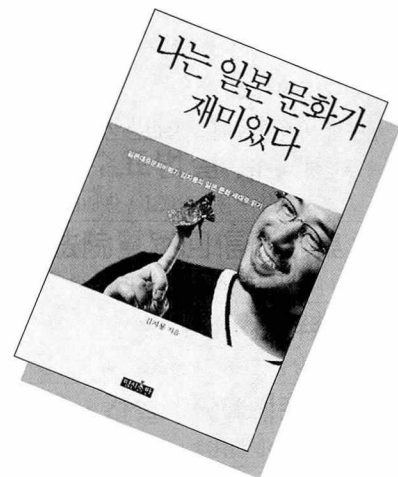
애니메이션, 만화 등 이미 세계를 평정한 일본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면 세계시장에서 어떤 것이 통용되는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일본만화는 견고한 일상성, SF와는 다른 차원의 팬타지를 만화의 소재로 삼아 이미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일상성과 팬타지가 나란히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일본문화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본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대한 틀로 존재한다. 전문가를 넘어 비평적인 시각까지 갖춘 오타쿠들이 스스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류사회의 논리와 규모에 맞선다는 측면에서는 언더그라운드와 같지만 이들과 달리 밝고 역동적이면서 생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인디즈'가 생동하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문화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인의 집단주의는 무지가 낳은 편견일 뿐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마케팅 전문가들의 안목은 일본 대중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도! 요즘 어려운 출판 유통 시장!

사장님! 힘내세요.



“
포인트라인
만나면
즐겁습니다.
”

출판미술전문회사 POINT LINE

불황을 이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라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곱명과 우수 디자이너 다섯명 그리고 연구 기획하는 아이디어맨 세명으로 구성된 색다른 눈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부에서는 종이입체 일러스트, 파스텔화, 지점토, 유화 및 기타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으며, 픽처북, 표지, 카렌다, 카드, 각종 참고서, 교과서, 학습지, 스토리북 등 기타 어떤 일러스트도 소화해 내는 국내 유일의 팀입니다. 광고 디자인부는 사보편집 기획부터 단행본, 카달로그, 리플렛, 신문 잡지광고, 표지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및 C.I.P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에서는 일반 단행본 기획, 유아도서 기획, 학습지 개발, 유치원 교재 개발까지 지난 15년간 항상 앞서가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출판 미술 전문 집단 포인트라인은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 하며 한국 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 당당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31한일빌딩3층
전화 02)928-3491~3 • 팩스 02)926-2246